

육계자조금 대의원총회 개최와 향후 추진방안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 닷 올리다



총 자조금 사업 50억 규모

육계의무자조금사업이 그간 많은 진통을 낳았지만 자조금대의원총회를 통해 거출이 최종 확정되면서 자조금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지난 20일 안성 소재의 농협연수원에서는 135명의 대의원중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12월 23일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지 4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회의진행은 대의원 총 109표중 66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된 이홍재 대의원이 진행하였으며, 부의장은 대의원중 33표를 얻은 송태희 대의원이 당선되었다.

회의안건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던 자조금 거출여부 결

정(안)은 대의원 109명 중 찬성 85표, 반대 24표 무효 1표로 의결되면서 자조금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자조금 거출금액 결정 및 거출금액은 거출비율 2.5/1000, 수당 5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품종별 거출비율(안)에 대해서는 4개안에 대해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5안이 46표를 얻어 최종 확정되었다. 거출비율은 육계 100%(5원/수), 삼계 50%(2.5원/수), 재래닭 150%(7.5원/수), 종계 1,000%(50원/수)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모아지는

자조금은 약 25억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 25억원을 합한 50억원으로 자조금사업이 운영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산계획 및 운영을 위해 활동할 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위촉(안)은 공동준비위원회에서 상정한 대의원회에서 추천되는 관리위원 8인 건이 찬성 2표, 반대 78표로 부결되면서 진통을 겪었으나, 각 지역별로 대의원들을 추천하여 도별 2인, 품종 1인별로 재선출하였으며 이후 사항들은 오랜시간 경과로 인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회의를 끝마쳤다.

향후 과제 및 추진방안

자조금 거출여부가 결정되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자조금사업 시행에 첫발을 들여놓았지만 진행과정상 몇가지 난관들은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의원수가 135명인데 반해 총 선거구 150명의 대의원수를 기준으로 2/3이상 즉 1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충족돼야 의결정족수로 인정되어 있어, 현 135명을 기준으로 2/3인 90명을 의결정족수로 해야한다며 정부에 정정을 요구하거나 대의원내에서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조금 거출금액 결정 건과 관련해서는 계열업체와 사육농가간의 사전에 거출비용이 조율되지 못한 상황에서 계열업체 거출비용을 놓고 한동안 여러의견들이 개진되면서 오랜시간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자조금 시행시 풀어야할 숙제이자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열업체와 사육농가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생산자 규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축산단체가 추천한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



명단이 부결됨에 따라 대의원들이 도별 2인과 품목별 1인을 선출하였지만 일부 단체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관리위원회 인원 및 감사 위촉 건에서는 육계자조금활동자금대의원회 운영규정 제14조(관리위원 위원의 위촉)에 명시된 '대의원회에서 위촉하는 관리위원은 도별 축산업자 수 및 육계사육수수(또는 축산물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의 내용이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당일 선출한 관리위원과 감사들이 인정되는지는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든지, 아니면 축산단체가 위촉명단을 재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든지의 추후 진행사항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해결 되면 5월중 자조금관리 사무국이 마련되고 관리위원들에 의해 앞으로의 자조금 거출, 예산편성 및 자조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등이 진행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육계의무자조금사업이 잘 운영되어 육계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양계**